



주임원사, 조앤 뉴먼

주임원사, 주한 미 특전사령부

조앤 뉴먼 주임원사는 뉴저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윌리엄 앤 매리 대학에서 미국학 및 정부학을 전공하였으며, 대학을 마친 후, 1996년 2월에 음성 언어 분석병으로 미 육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입대 후, 국방 언어 대학에서 아랍어 기본 군사 언어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텍사스주에 위치한 굿펠로우 공군 기지에서 분석병 심화 개인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뉴먼 주임원사는 311 군사정보대대, 344 군사정보대대, 그리고 여러 특수임무 부대에서 근무하였으며, 중앙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를 포함하여 총 14 번의 파병경험이 있습니다.

뉴먼 주임원사는 2015년 10월 부터 2018년 2월 까지 미 통합특수전사령부 정보처 선임부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는 텍사스에 위치한 15 군사정보 대대 주임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뉴먼 주임원사는 미 통합특수전사령부 정보여단 주임원사로 근무중입니다.

뉴먼 주임원사의 군사교육으로는: 아랍어 기본 군사 언어 과정, 공습 과정, 기본 리더십 과정, 레펠 마스터, 심화 리더십 과정, 기본 공수 훈련, 교관 과정, 군사 강하 훈련 과정, 특수작전 정보 리더십 과정, 그리고 미 통합특수작전 주임원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뉴먼 주임원사의 수상 내역으로는: 훈공장, 동성훈장 (2 회), 국방 공로 훈장 (3 회), 에어 메달 (공군 훈장), 합동복무훈장, 육군 공로 훈장 (4 회), 육군 유공훈장 (3 회), 및 성 미카엘 훈장이 있습니다.

뉴먼 주임원사의 남편으로는 토마스 바이어드 육군 원사가 있으며, 현재 바이어드 원사는 미 훈련교리사령부 작전처 소속 원사로 근무 중입니다.